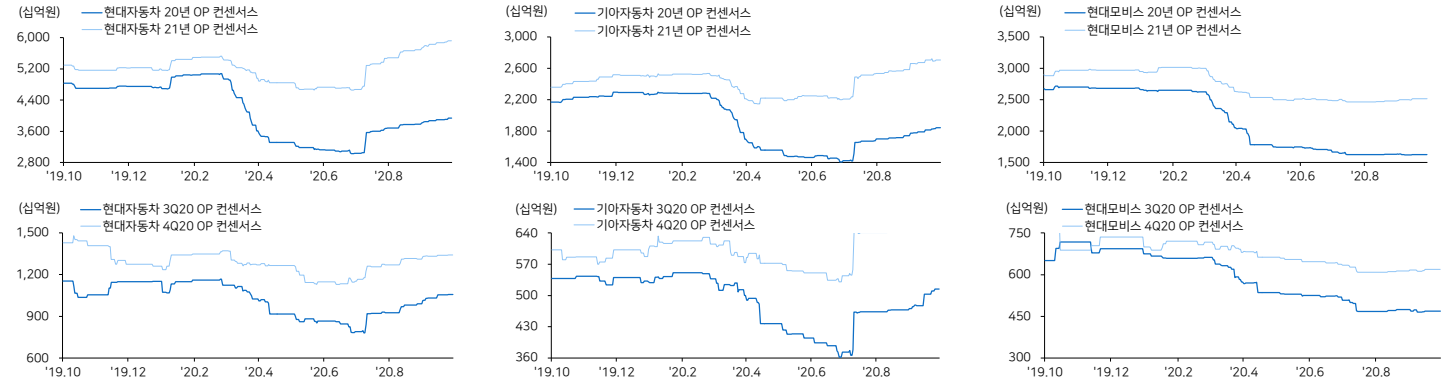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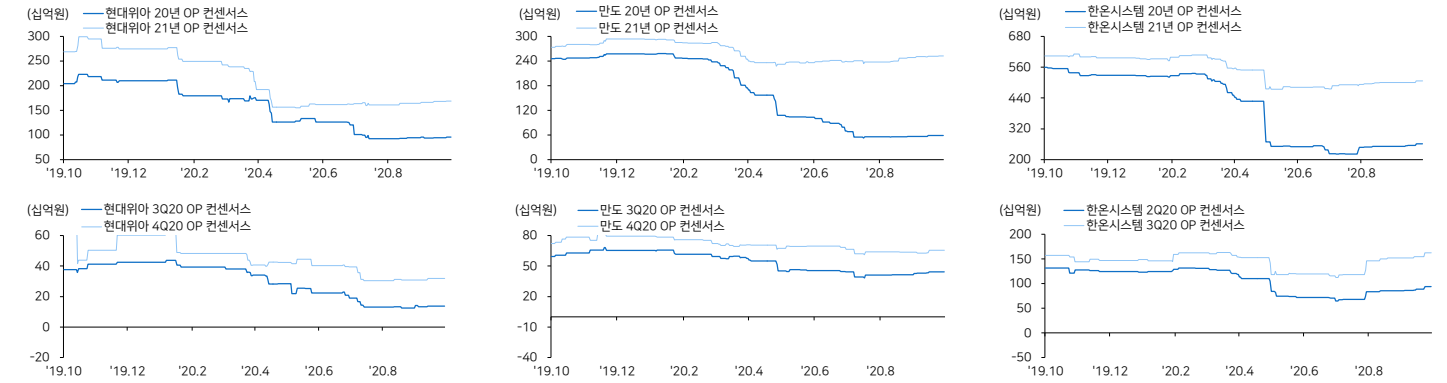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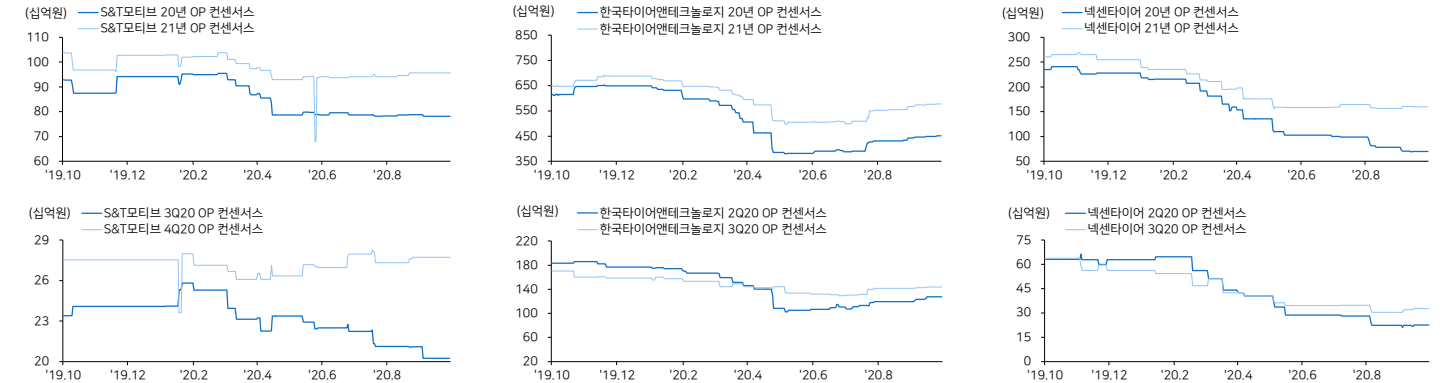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전동화 전략 차질 막자' 현대차, 코나 EV 화재에 선제 조치 (뉴스문)

현대차가 코나 EV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대규모 리콜에 들어감. '2025년 전기차 판매 100만대' 등 전통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차 안전성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 <https://bit.ly/3jR11k>

현대차 '중고차사업 진출'...가격·품질인증에 새 전기 (매일경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유력하게 검토. 허위·미기 매출과 강매 논란으로 소비자를 울렸던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다면 적정한 거래 가격 산출은 물론 철저한 품질인증 절차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큼. <https://bit.ly/3716DMM>

타이어업계, 후 회복세에 방긋...하반기 실적회복 시동 (아주경제)

국내 타이어 3사가 전 세계 타이어 수요 반등에 따라 하반기 실적 반등에 시동을 걸고 있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의 올 3분기 실적은 직전 분기 대비 개선될 전망. <https://bit.ly/2G0qXp>

아마존 '탄소제로' 목표 2030년까지 전기차 10만대로 배증 (경기신문)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전기 배송 트럭을 공개. 이번에 공개된 차량은 지난해 9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전기밴 1만대 주문 후 저를 선보인 모델. 해당 차량은 오는 2022년부터 아마존 운송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 <https://bit.ly/33PnkJ5>

'코나' 전기차 화재 원인... '배터리 안전 마진' 가뭄이 여겼다 (전자신문)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3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코나 EV의 배터리 안전마진이 다른 경쟁차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안전 마진을 줄인 설계가 이번 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됨. <https://bit.ly/34k3oqh>

스위스 상륙한 현대차의 수소트럭 '다음은 美·中이다' (주간한국)

현대자동차가 유럽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겠다. 현대차는 스위스 루체른에서 유럽으로 수출한 '엑시언트 수소트럭'으로 한국과 중국 배터리 업계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됨. <https://bit.ly/3dkFxB>

한국에 밀리고, 중국에 치이고... 일본 파나소닉, 토요타 배터리 생산 협력 (전자신문)

일본 파나소닉과 토요타가 합작공장을 통해 하이브리드차용 배터리 생산 협력에 나섬. 자국 배터리 및 완성차 업체 간 협력으로 한국과 중국 배터리 업계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됨. <https://bit.ly/36UAXbD>

작년만큼은 안돼도... 브라질 자동차시장 회복 기대치 높아져 (연합뉴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음. 전국자동차산업연맹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대비 올해 자동차 생산·판매 감소 폭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https://bit.ly/3nCHGwR>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